

# 주요국별 CSR 정책 및 현지 CSR 사례집



# Global Market Report

# CONTENTS

## 목 차

<b>I. 서론</b>	<b>1</b>
<hr/>	
<b>II. 주요국별 CSR 정책과 동향</b>	<b>2</b>
<hr/>	
1. 미국	
2. 중국	
3. EU	
4. 일본	
5. 베트남	
6. 인도	
<hr/>	
<b>III. 유형별 기업 CSR 사례</b>	<b>21</b>
<hr/>	
1. 코로나19 방역지원	
2. 자선기금·물품 기부	
3. 지역사회 역량강화	
4. 지역경제 활성화	
5. 기타	
<hr/>	
<b>IV. 시사점</b>	<b>40</b>
<hr/>	

## □ CSR 정책 및 사례 연구 필요성

- (글로벌 추세) 국제규범과 국내 경제·사회적 요인, 국민 인식의 제고와 사회적 압력 등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추세
  -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 정부 정책에 따른 법적 리스크 및 직간접 이해관계자 리스크 관리, 신시장 개척 등 다양한 목적으로 CSR을 적극적으로 도입 및 시행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며, 본인의 소비 행위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여부를 연계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제품은 보이콧하는 경향 강화
- (정부) 각국 정부는 정책과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
  - CSR 활동을 법제화하는 정부(중국, 인도 등)는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조건과 활동 평가지침을 통해 의무로 규정
  - 기업의 자발적 활동을 장려하는 국가(미국, 유럽, 일본 등)는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외, NGO나 연구회·협회 등 기관의 협의 내용을 정부정책으로 반영 및 보완 추진
- (필요성) CSR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CSR 활동과 연계한 전략적 비즈니스 모델 수립 필요
  - 대기업은 CSR 전담부서 설치 및 전략 수립으로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 CSR은 기업 이미지 관리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현지 정부정책 및 동향을 적극 파악할 필요
- (목적) 우리기업의 진출이 많은 주요국별 변화하는 정책 동향과 트렌드, 기업별 CSR 활동 성공·실패사례 분석을 통해 시사점 제시

## II

# 주요국별 CSR 정책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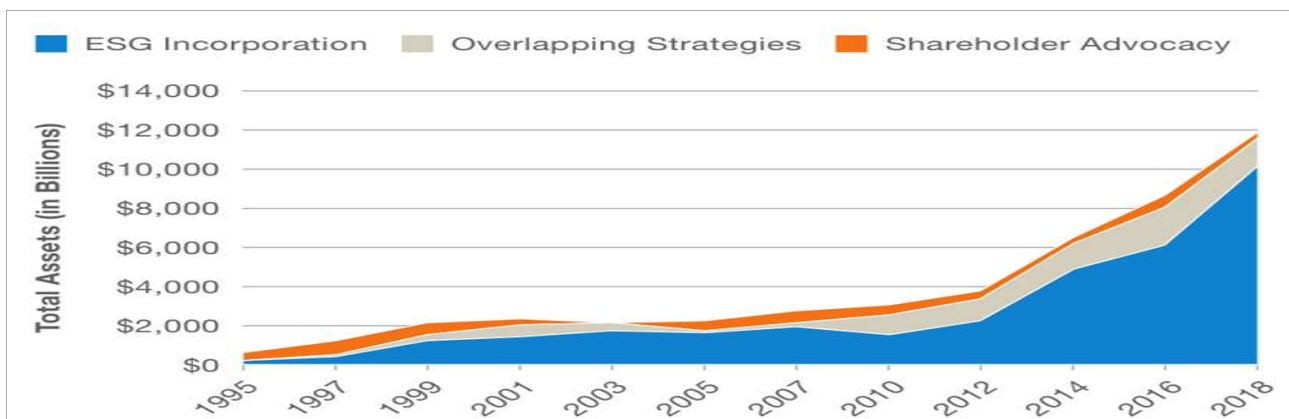
## 1

### 미국

#### □ 민간부문이 CSR 활동 주도

- (개요) 미국의 CSR 활동은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해지기 시작, '00년대 초반까지 글로벌 기업들이 CSR 개념을 사업 과정에 접목
  - 경제체제·문화 특성 상 CSR은 보이지 않는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소비자 기대수준 및 내부규범을 고려하여 대부분 기업이 의무로 간주
  - 기업의 자발적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부·자선활동이 활발하며, 기업의 마케팅과 연계시키는 전략적 기부도 활발한 것이 특징
  - NGO, 민간 사회적 책임투자펀드(SRI), 대형 금융기관, 연금기금 등이 적극 관여해왔으며, SRI 펀드가 CSR을 촉진하는 주요 역할 수행
  - SRI 투자방식은 ESG 통합과 ESG 이슈에 관한 주주제안 방식\*으로 구분되며, '18년 기준 11.6조 달러로 '95년 이후 18배 증가
- \* ESG 통합은 투자시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 주주 제안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ESG 관련 정책·전략 검토 및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

< 미국 SRI 투자 현황('95~'18) >



\* 자료원 : US SIF Foundation

- (정부) 최근 정부는 CSR의 표준\*, 권장 프로그램, 가이드라인과 함께 CSR 활동에 대한 세금 혜택 및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기업·정부의 CSR 역할을 강조

\*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UNGPS) 보고서를 통해 기업운영 과정 상 사회적 책임과 인권에 관한 31가지 원칙 제시

- (기업) 기업은 CSR 활동을 '신뢰창출'의 수단으로 활용
  - CSR 활동을 통해 환경·윤리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
  - \* '00년대 중반, 기업윤리 문제와 기업파산 상황이 대두되면서 기업과 학계는 CSR을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접목한 전략적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
  - '11년에는 S&P 500개 기업 중 20% 미만의 기업이 CSR 보고서를 발간했으나, '17년에는 85%의 기업이 보고서를 발간
- (소비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일부 소비자군 (밀레니엄·Z세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와 본인의 소비를 연계
  - '20년 Z세대 소비자 중 89%는 제품 구매 시 기업의 사회·환경이슈 동참 여부, 65%는 기업의 CSR 노력을 고려한다고 응답(Cone커뮤니케이션)
  - 밀레니엄 세대 중,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제품 구매 비율은 87%, 자신의 가치에 반하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 의사 비율은 76%로 확인
  - 아울러 기업이 실수를 범했더라도 사회적 책임 활동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온 경우, 용서가 가능하다는 인식 소지

## □ 코로나19 이후 정부 정책을 통한 CSR 활동의 장려

- (연방정부) '20.3.27 CARES ACT\*를 제정하여 CSR 활동을 보다 장려
  - 기존 기업의 CSR 활동 시 정부는 과세수입의 최대 10%까지 세금을 감면했으나, 코로나19 이후 25%까지 감면 추진
  - \* CARES Act(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구호 및 경제 보장법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개인에게 경제적 구제 제공 위한 법안
  - \*\* 일반 개인은 기부액 1달러당 30센트의 세금 감면 혜택 적용하며, 개인별 소득 구간에 따른 차이 존재(TAX POLICY CENTER)
- (지방정부) 일부 지방정부는 자체 제도를 통해 CSR 활동을 장려 중인데, 일례로 LA시는 'LA Emergency COVID-19 Crisis Fund' 제도를 제정('20.3), 기업의 기부금을 받아 시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
  - \*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노숙자 및 청소년들을 위한 의료 혜택 등
- (기업)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라는 새로운 기준이 일상화 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가치 공헌에 일조
  - \* (아마존) 인근 중소기업 위한 500만 달러 구호기금 지급발표, (구글) 캘리포니아 주 마운틴뷰 소재 기업에 100만 달러 지원 약속 등

## □ 정부주도의 CSR 추진

- (연혁) 중국의 CSR 추진은 정부주도로 이뤄졌으며, 3단계로 구분
    - (1단계 : 90년 중반~'00년) CSR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관련 준칙 및 표준을 제정하는 등 체계를 구축
    - (2단계 : '00년~'06년) CSR 활동을 주목하기 시작, 정부 및 학술기관이 CSR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정부부처(노동부·상무부)는 중국 기업의 CSR 실태 조사 실시
    - (3단계 : '06년~) 기업의 CSR 평가를 본격 개시하며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고, 회사법에 사회적 책임 관련 조항 명시 및 노동법에 종신고용 규정 등 노동자 보호조항 삽입
  - (최근동향) 다양한 정책을 통해 CSR 활동을 강화해왔고, 시진핑 주석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
    - 시진핑 주석은 산·학·연 자원의 지속적인 공유('18년 보아오 포럼)와 기업의 경제·법률·도덕 및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20년 기업좌담회) 강조
    - 아울러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각 지방정부도 CSR 이행 관련 촉진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 시행 중
- \* 선전시 정부 'CSR이행 촉진을 위한 의견' 발표, 상하이 정부 '상하이 푸동신구의 CSR 체계 구축을 위한 3개년 행동요강' 발표 등

## ※ (참고) 과거 중국 정부의 CSR 강조 정책

- '13년 중국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전면적 심화개혁 중대 문제에 대한 결정'을 발표, 국유기업 개혁을 목표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거론
- 제5차 전체회의에서 '창조·융합·녹색·개방·공생' 발전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발전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
- '16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자선법'을 발표하여 자선 관련 조직·규모·관리 감독·책임에 대해 규정했고, 자선단체의 업무보고·정보공개 의무화
- '16년 국무원은 '135 빈곤해결계획'을 통해 맞춤형 빈곤해결 계획 청사진 제시

## □ CSR 활동에 대한 정부 지원 및 규제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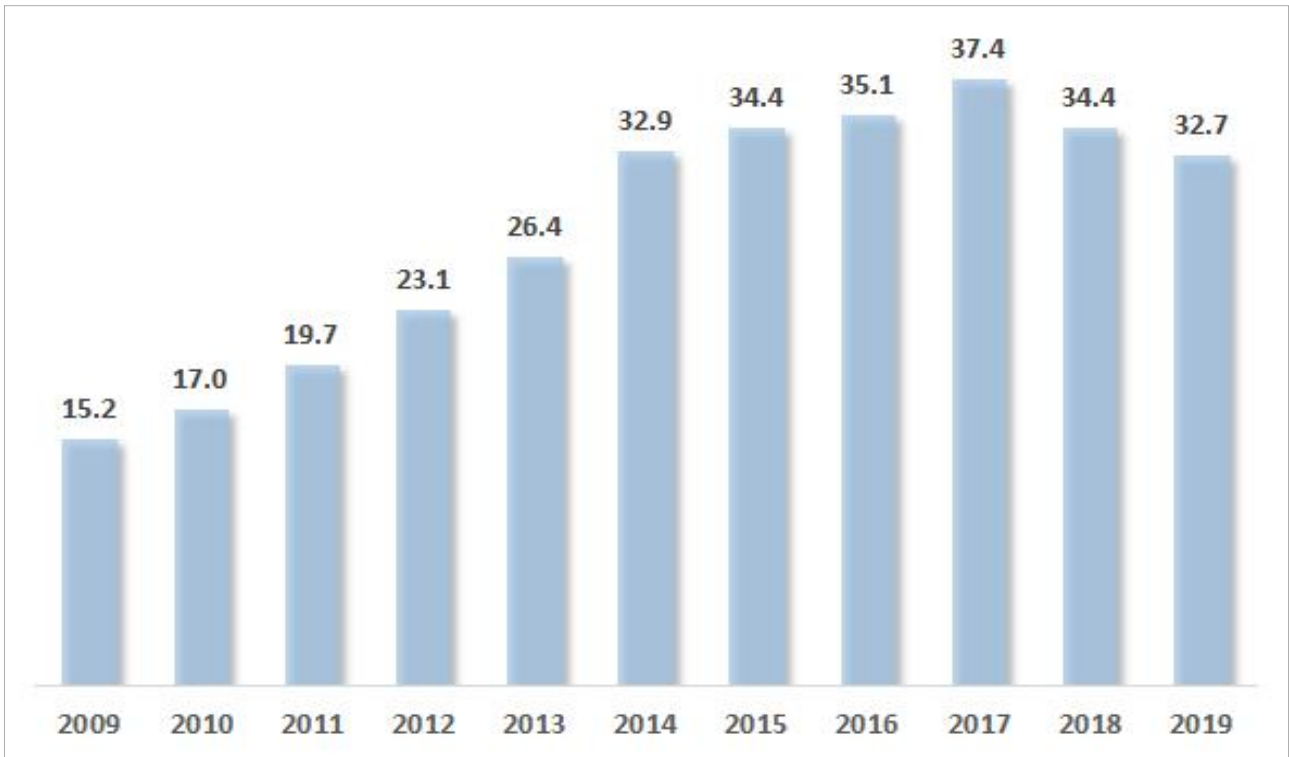
- (혜택) 기업의 공익적 기부활동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부여
  - '14년 국무원은 '자선사업의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기업의 공익성 기부·지출에 대해 연간 총액 12%까지 세금 감면
  - 개인의 기부에 대해서는 납세대상 소득총액 30%까지 세금 감면
- (규제) 기부 수혜측 권리를 보장하는 '자선법' 발표
  - 기부활동 전 공여측-수혜측 간 기부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조하고, 약정된 기부 미이행 시 수혜측은 공여측 대상으로 법원에 지급명령 요청 혹은 소송 제기 가능
  - 자선단체가 세금감면을 목적으로 허위활동 시 세무조사를 시행하고, 심각한 경우 자선단체 등록 취소, 범죄 구성요건 성립시 형사책임도 가능
  - 자선단체가 봉사활동 중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라도 자선단체에 손해배상책임 부담 발생
- (활동평가) CSR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에 따라 정부와 각 기관은 CSR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활동을 평가
  - '11년 CSR연구센터는 'CSR보고서 작성지침' 수정본을 발표하여 CSR 보고서의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기업 발간 보고서의 내용 및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비
  - '13년 중국 중소기업전국이사회는 '중국 중소기업 사회적 책임 지침'을 마련하여 기업의 CSR 가이드라인 제시
  - 중국사회과학원 경제학부 CSR연구센터는 '09년부터 매년 중국 내 100대 국유기업, 100대 민영기업, 100대 외자기업을 선정해 기업별 CSR 활동 평가 및 기업별 순위를 발표

※ (참고) 중국 내 300대 기업 및 한국기업의 CSR 지수

- '19년 기준, 중국 내 300대 기업 CSR 지수는 32.7점으로 전년대비 1.7점 하락했으며, 국유기업은 54.6점, 민간기업은 28.6점을 기록
- 300대 기업 중 삼성이 88.7점으로 전체 2위를 차지했으며, 외자기업 중 Top10에 한국기업은 4개사가 랭크

\* 외자기업 중 Top 10 : 삼성(1위), 현대(2위), LG(4위), 포스코차이나(5위)

< 중국 내 300대 기업 CSR 발전 지수 >



\* 자료원 : 중국사회과학원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

- (관심제고) 기업 국적 불문, CSR 이행 여부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했고, 기업의 CSR 미이행 혹은 대응 소홀 시 매우 민감하게 반응
  - 과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시, 네티즌들이 기부한 성금이 적다고 판단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판과 함께 불매운동까지 펼쳤으나, 성금이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사 제품 소비열풍으로 품질현상까지 발생
- (다양화) 아울러 CSR 활동이 기업·브랜드 이미지, 더 나아가 생존 과도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활동내용도 단순기부에서 환경, 기술분야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
  - 신에너지·환경보호 등에 대한 인식 강화 및 시장 주도형의 녹색 기술혁신 체계 구축에 따라 환경오염 통제, 에너지 절약, 대체 에너지 등 분야의 기업 CSR 이행 증가
  - 특히 기업의 기술혁신에 따라 CSR 이행은 단순한 봉사활동이나 기부금에 국한되지 않고, 기술·지재권 기부 등 다양화되는 추세



## □ 정부의 CSR 법제화 및 민간의 높은 CSR 인식 수준

- (법적근거) EU 기능조약(TFEU)\* 제21조 및 기본인권 헌장(Charter) 제10~31조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CSR 정책 수립

\* TFEU :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 < CSR 관련 EU 정책근거 및 최근 정책 >

#### ○ 정책근거

- EU 기능조약(TFEU) : 21조(인권, 지속가능성 SDGs)
- 헌장(Charter) : 10조(평등, 비차별), 16조(기업규칙), 24조(아동권), 31조(노동환경) 등

#### ○ CSR 관련 최근 EU 정책

- '11~'14 EU CSR 전략(A Renewed EU Strategy '11~'14 for CSR, '11년)
- 비재무 보고서 의무 공시 지침(Directive 2014/95/EU on non-financial reporting, '14년)
- '15~'19 인권 및 민주주의 EU 행동계획(Action Pla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15년)
- 지속가능한 EU 미래 위한 이후단계(Next steps for a sustainable European future, European action for Sustainability, '16년)
- SDGs 이행위한 지속가능한 EU 행동계획(European action for sustainability, '16년)
- 2030 지속가능한 유럽(Towards a Sustainable Europe by 2030, '19년)

- (정부) CSR 관련 국제규범 수립을 선도하고, 국제규범과 연계된 EU 차원의 제도를 마련해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 EU는 ISO 26000, GRI, UN Global Compact 등 국제규범 수립에 기여했고, 지속가능한 발전 등 유럽 정책전반에 SDGs 이행을 강조

- (민간) 시민들은 제품 구매에 있어서도 기업의 환경·사회적 측면을 주목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기업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높은 인식으로 자발적인 활동 전개

- EU 소비자의 55%가 환경친화적 제품 구매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FMCG Gurus)
- EU 기업의 96%가 지속가능한 제품 공급전략을 보유하고, 85%의 기업이 지난 5년간 지속가능 제품의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EU 국제무역센터)
- 2020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100대 기업 중 49개사가 EU 기업이며, CSR 활동이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

< 대륙별 선정기업 분포 >

지역	국가(기업수)
유럽(49)	프랑스(9), 핀란드(6), 영국(5), 덴마크(5), 독일(5), 이탈리아(4), 스페인(3), 스웨덴(3), 네덜란드(3), 벨기에(2), 노르웨이(1), 스위스(1), 아일랜드(1), 오스트리아(1)
북미(29)	미국(17), 캐나다(12)
아시아(16)	일본(6), 홍콩(3), 한국(2), 싱가포르(2), 중국(2), 대만(1)
기타(6)	브라질(3), 호주(2), 남아공(1)

\* 자료원 : Corporate Knights

- (네트워크) CSR 이행 및 발전을 위한 강력한 역내 네트워크 보유
  - '96년 출범한 CSR Europe은 유럽기업의 CSR 관련 가장 큰 허브 플랫폼으로 1만개 이상 기업이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정기 컨퍼런스 개최 및 로드맵·백서 발간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06년 출범한 유럽 CSR 동맹(European Alliance for CSR)은 집행위 주도로 발족한 기관-기업간 협력 네트워크로 역내 CSR 확대를 목표로 기업 150개社 및 EU 주요기관이 참여 중

□ 지속가능 발전을 강조하기 위한 법적책임 강화

① 법적 구속력 통한 기업 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이행 강조

- 과거에는 역내 CSR 확산 위해 자율성을 강조했으나, 현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의무화한 기업책임경영(RBS)\* 형태로 전환 추세
  - \* OECD 가이드라인에서 최초 언급, 기업활동 공개 및 뇌물부패 방지까지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 강화

① 기업의 CSR 활동 비재무 보고서 발간 의무화

- (목적) 기업의 환경·고용·사회적 영향 관련 CSR 활동을 담은 비재무 보고서 공개 의무화로 기업 CSR 이행 및 투명성 제고
- (대상) 회계연도 기준 연평균 고용인원 500인 이상 기업
  - \* 지침 성격으로 회원국은 적용대상 범위 지정이 가능하며, 덴마크는 모든 대기업을 대상으로 지정
- (법적근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지침 2014/95/EU
- (시행시기) '17.1.1일부('14.11.15 공표)
- (주요내용) 기업활동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UN 글로벌 콤팩트, ISO 26000, 독일 지속가능성 코드 등을 통해 공개 필요

\* 보고서 내용 : ①기업 비즈니스 모델, ②제품·서비스 정보, ③환경·사회·고용 분야 관련 기업활동 및 공급망 실사 이행, ④비재무 주요성과, ⑤기업활동 관련 위험 요인, ⑥제품·서비스가 환경·사회·고용 문제에 부적절한 영향 미칠 가능성 등

- (모니터링) 각 회원국은 법정 감사관 또는 감사회사를 통해 기업 보고서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보고서 내용 검증 요청 가능
- (기타) 모회사가 그룹을 대표해 비재무 보고서를 공개하면 자회사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정보공개가 기업활동에 심각한 불이익을 야기할 경우 당국과 사전협상 통해 예외적으로 특정정보 생략 가능

## ② 분쟁광물 제품 관련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의무화

- (목적) 유혈분쟁에 연루된 광물수입을 금지하고,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및 노동착취를 막고 공정한 거래 유도
- (내용) 4대 광물 수입 시, 기업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관련 제품에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 증명 필요

\* 콩고공화국·르완다·우간다 등 분쟁지역 내 채굴되는 4대 광물(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 (법적근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No. 2017/821
- (시행시기) '21.1.1부 발효('17년 공포)
- (주요내용) 수입자에게 ①공급망 실사에 대한 자체인증 후 제3자의 감사결과와 함께 당국에 신고하고, 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광물 추적을 위한 관련 정보 수집 및 5년 이상 보관 등 의무 부과

\* 관할당국은 수입자 자체인증에 대한 사후검증 시행 가능

\* 관리시스템 필요정보 : ①광물의 종류 및 원산지, ②제조사 정보, ③채굴일자 및 채굴량, ④제3자가 기록한 제련소 및 정제소의 감사보고서 등

- (모니터링) 당국은 수입자의 공급망 실사지침 이행 준수를 모니터링하며, 기업은 공급망 실사 관련 정보 공개 의무를 지님

## ③ 공공조달 내 사회·환경 측면 이행 강조

- (목적) EU GDP의 20%를 차지하는 공공조달 시장 내 그린·지속 가능한 조달을 장려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강화
- (내용) 기존의 최저가 중심 낙찰방식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찰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Tender)' 방식 도입, 사회·환경적 측면을 고려

\* (사회) 노동법 준수기업에 우선순위 부여 가능, 입찰 선정시 실직자·장애인 고용 수가 영향

\* (환경) 입찰기준에 환경라벨 포함, 친환경 제품 낙찰조건 유리하게 조정

- (법적근거) EU 공공조달 지침 2014/17/EC, 2014/24/EU, 2014/25/EU
- (시행시기) '16.4월 지침 발효 이후, 집행위는 지속적으로 품목별로 그린·지속가능 조달 가이드를 마련 중
- \* 식품·케이터링 서비스('19.10), 클라우드 서비스('20.3), 섬유제품·서비스('20.5) 등

## ② UN 2030 아젠다와 연계된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 '15.9월 수립된 UN의 17개 SDGs를 모든 정책분야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투자·무역협상에도 SDGs 이행을 강조
- \* '19.12월 취임한 Von der Leyen 신 집행위원장의 6대 핵심분야 내 2개분야가 SDGs와 관련

### ① UN 2030 아젠다와 연계한 지속가능 발전 추진

- EU는 UN의 17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를 모든 정책분야와 접목하도록 하여 '19.1월 '2030 지속가능한 유럽미래(Towards sustainable Europe 2030)'에 UN의 SDGs 이행방안 마련

#### < UN 2030 아젠다 SDGs >

- (개요) 빈곤퇴치와 함께 경제·사회·환경 분야에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위해 '30년을 목표로 총 17개의 개발 목표와 169개 세부 이행과제 제시
- (목표) ①빈곤퇴치, ②기아해소, ③웰빙, ④교육증진, ⑤성평등, ⑥수도정화 및 위생, ⑦클린에너지, ⑧양질의 일자리 및 경제성장, ⑨산업·혁신·인프라 증진, ⑩불평등 해소, ⑪도시 및 커뮤니티 발전, ⑫책임적 생산·소비, ⑬기후대응, ⑭해양자원 보존, ⑮육지생태계 보존, ⑯행정제도 구축, ⑰목표 이행 위한 파트너십 활성화



\* 자료원 : UN

- '19.12월 폰데어라이언(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이 발표한 EU 6대 핵심분야\* 중 2개 분야에 SDGs 이행이 포함되며 SDGs를 더욱 강조
  - \* ①유럽 그린딜, ②디지털화, ③공정무역 환경조성, ④유럽형 사회 시장경제 구축, ⑤유럽통합 확대, ⑥민주주의
- 특히 유럽 그린딜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유럽의 성장전략으로 6대 핵심분야 중 최우선 과제이며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강조 (EU 집행위 경제총국장 Paolo Gentilon)
  - \* 그린딜 : '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달성 목표 내 ①에너지 탈탄소화, ②지속가능 사업, ③건축·운송 에너지 효율성 강화, ④식품안전, ⑤생태계보존 등 지속가능 정책 제시
- 新집행위원장의 SDGs 미래비전에 따라 현재 19개 정책 총국(Policy DG) 집행위원들이 산업별로 SDGs 정책반영 추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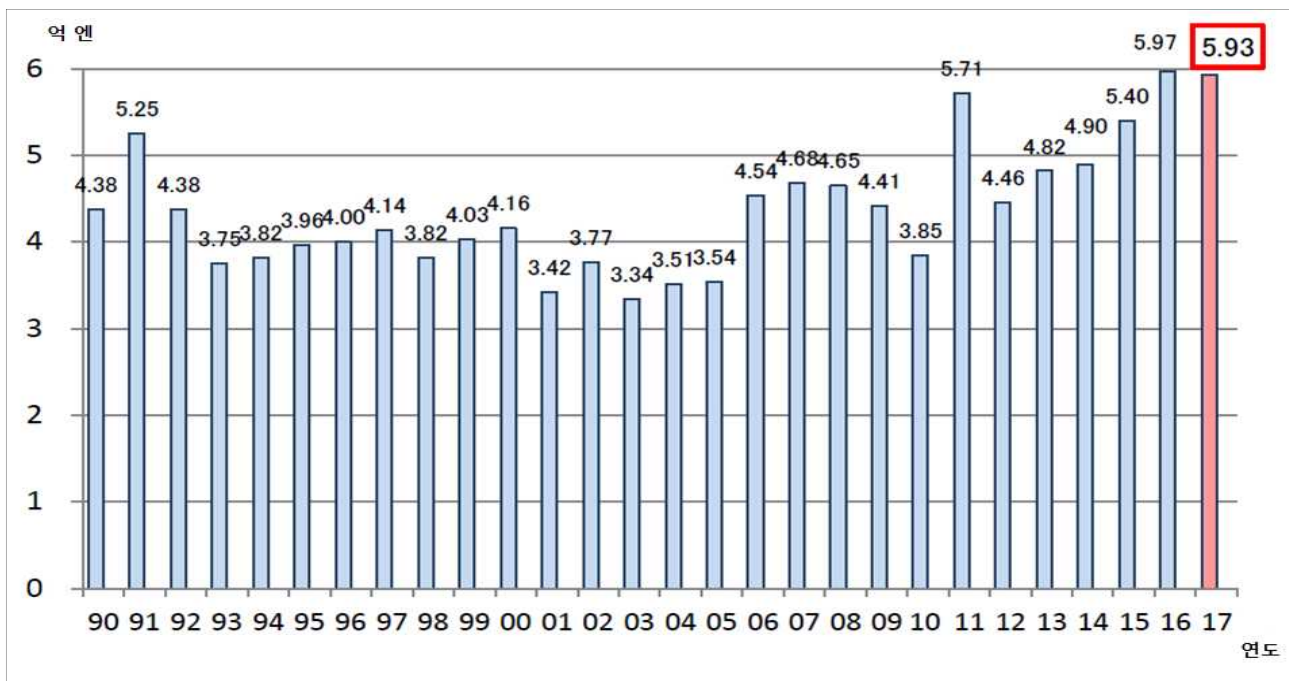
## ② 투자 및 무역협상도 지속가능발전(SDGs) 이행 강조

- (투자) 그린세탁\* 방지 및 녹색 금융상품 내 민간투자를 독려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규정\*\* 마련('20.6월)
  - \* 그린세탁 : 기업들이 환경 친화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지칭
  - \*\* Regul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framework to facilitate sustainable investment
- (법적근거)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No. 2020/852
- (발효시기) '20.7.8.부('20.6.22 공표)
-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금융상품 분류체계\*·분야별 환경영향 기술평가 기준 수립 및 플랫폼\*\* 개설, 금융상품의 친환경 투자비중 공개 의무화 등
  - \* ①기후변화 완화,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 사용과 보호, ④순환경제 전환, ⑤오염방지·통제, ⑥생태계 보호 및 복원
  - \*\* 분야별 기술평가 세부기준은 수립 예정, 플랫폼은 유럽 환경청, 유럽 감독기구, 유럽 투자은행 및 투자기금처로 구성
- (무역) SDGs에 주안점을 두고 협상을 추진하되, 환경분야\*는 파리 기후협약의 이행·환경보호를 주요 기준으로 삼고, 노동분야\*\*는 ILO 4대 핵심협약의 준수를 필수 조건으로 설정
  - \* EU-Mercosur FTA는 비준 진행 중이나('19.6.28 타결), 브라질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 의향 및 아마존 삼림파괴 등으로 회원국들이 FTA 비준 반대 중
  - \*\* 베트남은 EU와 FTA 체결후('15.12월) 후, ILO 핵심협약 미비준으로 FTA 발효가 4년 넘게 지연, 베트남 정부가 ILO 비준을 수용하면서 '20.8월에 발효

## □ 산업계가 CSR 활동 주도

- (개요) 정부 차원의 CSR 관련 규제는 없으나, 산업계 전반에 CSR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CSR에 관한 인식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
  - 사회과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기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고, 기업들은 CSR 활동 자체가 자사의 기업가치 창출 및 보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고 여겨, 기업의 주도적인 대응이 보편적
- (인식수준) 해외진출기업의 63.1%, 중소기업의 60%가 CSR을 도입(도입 검토 포함)하여 높은 인식 수준을 지닌 것으로 확인
  - \* “일본기업의 해외사업전개에 관한 앙케이트 조사” (JETRO, '17년)
    - 대기업은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 CSR을 독려\*하고 있어 일본기업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CSR의 중요성도 확대
      - \* 도요타는 납품처 대상 CSR 가이드라인 수립('09년), 공급처의 CSR 도입 통한 사회적 책임 기여(인권·공정거래·환경 등)를 요구
    - 이에 따라 일본기업의 CSR 지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17년 기준 1개사당 지출액은 '12년 대비 33% 증가한 6억엔에 육박

&lt; 일본기업 CSR 평균지출액 &gt;



\* 자료원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사회공헌활동실적조사결과” 보고서

## □ 정부정책 및 민관협약체 운영을 통한 CSR 장려

- (정부) CSR을 규제하는 별도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중
  - 정부는 CSR 정책 관련 조정주체로서의 기능역할이 강하며, 법적 구속력보다 가이드라인 제시, 모범사례 표창 등 수단을 활용
  - '04년 경제산업성 산하 'CSR 연구회\*'를 조직, 기업 CSR담당자 및 이해관계자(Stakeholder)간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CSR 관련 경험·최신정보 공유 등을 통한 CSR 보급을 위한 노력 추진
    - \* 주요 참가기관(20년 봄 기준) : (기업) Sony, Toyota, Ajinomoto, Kao 등 14개사, (NGO·연구기관) 일본종합연구소, 사회적투자추진재단 등 6개 기관 (정부기관) 경제산업성, JETRO, 일본정책투자은행
  - 사회적 과제(인권, 환경 등) 해결을 통한 기업과 사회의 공존, 동반 성장을 위한 건전한 기업환경 만들기 지속 추진 중
- (민관협약체) 정부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09년 '사회적 책임에 관한 원탁회의\*'를 내각부 내에 설치
  - \* 정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노동조합, 금융기관, NGO 등 단체대표 12명으로 구성
  - 이해관계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각 분야 의견 수렴
  - 정부는 연구회·협의회의 협의결과를 주요 성장정책에 반영하여 사회적가치를 정부정책으로 반영 및 보완
  - 주요 성장정책(Society 5.0\*, 경제재정운영 기본방침 등) 내 사회적 과제를 성장과제로 설정\*\*하고, 기업의 성장방향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여 자국기업의 CSR 활성화를 유도
    - \* 4차 산업혁명(IoT, AI, 로봇 등)과 사회적가치를 결합한 일본정부의 문명전환 로드맵
    - \*\* 인권(업무방식개혁, 고령화문제 등), 재생에너지(탄소저감, 기후변동대응) 등 SDGs 주요과제에 대한 해결을 정부 성장전략의 중심과제로 책정

※ (참고) 현지기업·국민의 인식과 문화에 따라 CSR은 꼭 필요하며, 노동·기후 변화·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자사의 경영환경 정비 필요

- 일본기업이 주요과제로 인식중인 CSR 목표로 ①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 성장(SDGs 목표8), ②기후변화 대응(SDGs 목표13), ③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SDGs 목표12) 등이 있음(PwC Japan 조사, '19년)
- 기업의 CSR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사회공헌활동에서 법률준수, 경제적 가치 창조 등을 포함한 경제적·윤리적 책임으로 변화 중

5

베트남

□ 기업 주도로 CSR 인식 및 활동의 확산

- (개요) 베트남에서의 CSR은 '00년대 외국인 투자기업을 중심으로 시작
  - '98년 Unilever Vietnam社의 'Protection Vietnamese Smile Program'(어린이 대상 개인위생 교육), '04년 Honda Vietnam社의 'I love Vietnam'(안전교통 인지교육), '07년 Coca-Cola Vietnam社의 '깨끗한 물 프로젝트(음용수 공급)' 등이 대표적인 성공사례

Unilever Vietnam Protection Vietnamese Smile	Honda Vietnam I love Vietnam	Coca-Cola Vietnam 깨끗한 물 프로젝트
		

\* 자료원 : Vietnam Investment Review, Honda Vietnam, Coca Cola Vietnam

- 외국인 투자기업의 CSR 시행 이후,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현지기업들은 CSR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 '08년 제화 및 직물 분야 기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CSR 시행 기업은 수익개선 및 노동 역량 향상, 수출량 증가 등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노동사회협회(ILSSA))
- (인식) 현지인·현지기업의 공공이익 실현에 대한 인식은 다소 낮은 편
  - CSR 활동을 단순 기업브랜드 보호와 명성 제고 수단으로만 활용하거나, 자선 활동과 비슷하게 인지하는 경우 다수
  - '18년 기업평가기관인 'Vietnam Report'가 현지기업 대상으로 비즈니스 전략과 CSR을 통한 공익달성 기여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결과,
  - CSR 시행 목적으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89%)가 가장 비중이 높고, '직원복지'(65.8%), '지역사회와 환경보호'(60.5%) 등이 뒤를 이음
  - \* 응답결과 : 기업이미지 제고(89.5%), 직원복지(65.8%), 지역사회·환경보호(60.5%), 법안 이행(44.7%), 비용절감·품질 향상(39.5%)



## □ 정부의 CSR 장려정책 도입

- (정책)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CSR 활동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련 법안을 발의
  - '04년 정부는 '94년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Agenda 21' 내용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발표했고, 기업대상으로 환경보호·노동 환경 개선을 장려
  - '09년부터 '13년까지는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의 프로젝트\*를 통해 베트남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환경적, 사회적 성과 제고, CSR 인식 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 \* Helping Vietnamese SMEs to adapt and adopt CSR for improved linkages with global supply chains in sustainable production

### < 베트남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 선포 >

#### Part 5. 지속 가능한 개발의 구현을 위한 조직

- II. 지속 가능한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전사회적 동원
- 2.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요 단체별 활동 :

##### e. 기업인(Businessmen)

국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 기업의 시스템 발전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기업은 청정 생산 기술을 적용하고, 생산 과정에서 연료 및 재료를 절약하며 친환경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

기업인 협회(The Association of Businessmen)는 기업의 이익을 대표하고 기업인이 정치, 사회 및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조직이다. 협회는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기업들이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업인이 수행해야 하는 우선순위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청정한 방법으로 생산하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는 것
- 천연 자원의 절약과 환경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높이고 환경오염의 예방, 통제, 구제에 앞장서는 것
- 천연 자원 사용과 관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기업이 소재한 지역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회 경제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

### < UNIDO 중소기업 CSR 프로젝트 주요 내용 >

- 프로젝트명 : Helping Vietnamese SMEs to adapt and adopt CSR for improved linkages with global supply chains in sustainable production
- 수행기간 : '09년 2월~'13년 4월
- 포괄적 목표 : 지속가능한 생산형태의 적용 증가 및 베트남 중소기업의 유럽지역과 협력 및 이해관계 강화를 통한 환경오염 감소, 노동 환경 개선 및 국제 경쟁력 강화
- 구체적 목표 : 기업의 의식 향상 및 TBL(Triple Bottom Line) 및 CSR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통한 베트남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으로의 편입 강화
- 주요 기대 효과
  - ① TBL(Triple Bottom Line) CSR 접근 방식을 통해 베트남 중소기업, 소비자 및 기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 및 이해도의 증가
  - ② 베트남 중소기업들의 CSR 조달 기준 준수
  - ③ 지속가능한 생산의 실행 및 참여과정을 통해 검증된 행동양식을 전파하기 위한 정책·규제 권고

- (책임강조)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
  -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이 주요 사회 문제로 부상했고, 생산활동 중 환경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건강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
  - 그럼에도 처벌이 약한 경우가 많아 환경기준을 위반하는 사례\* 다대
    - \* '08년 V社 Thi Vai강 쓰레기 투기 사건, '16년 F社 유해 산업폐기물 바다 투기 등
  - 특히, 베트남은 폐수와 방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기술이 부족해, 환경보호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이를 위한 국제지원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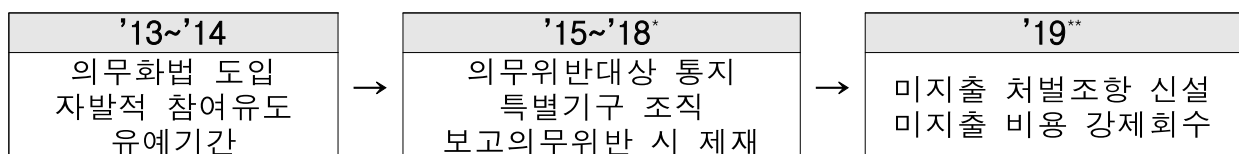
< 베트남 사회 문제 관련 규제 법안 >

분류	법안 (발행일자)	주요 내용
일반 사항	결의문 153/2004/QD-TTg 'Agenda 21' ('04. 8.17)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적 방향
	결의문 622/ QD-TTg ('17. 5.10)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국가주도 계획 프로그램
	결의문 1362/ QG-TTg ('19.10.11)	2030전망 민간부문 지속가능한 사업 계획안
환경 관리	법률 55/2014/QH13 ('14. 6.23)	환경보호
	법률 82/2015/QH13 ('15. 6.25)	천연 자원 및 바다 및 섬 환경 관련
	법률 17/2012/ QH13 ('12. 6.21)	수자원 관련
노동 기준 및 노동환경	법률 10/2012/QH13 ('12. 6.18)	노동
	법률 45/2019/QH14 ('19.11.20, '21년 발효)	노동
양성평등	법률 73/2006/QH11 ('06.11.29)	양성 평등 관련
부패방지 측정	법률36/2018/QH14 ('18.11.20)	부패방지법

## 6 인도

### □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를 위한 CSR 의무화법 도입

- (개요) 정부는 종교 및 문화적 배경에 따라 회사의 공공책임을 강조하고 사회 기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13년 의무화법 도입



\* '16년에 기업 대상 5,382건 통지

\*\* '19년 7월 CSR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기업 및 임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11년 기업부는 '국가차원의 자발적 가이드라인\*(이하 NVG)'을 발표하고 기업의 사회·환경·경제적 책임 강조

\* National Voluntary Guidelines on Social Environment & Economic Responsibilities of Business

- '11년 11월,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보고를 의무화하고, 상위 100대 기업에 즉시 적용
- '12년 12월 회사법(Company Bill)이 하원을 통과

- (특징) 종교·사회적 배경과 정부의 의지가 혼합된 새로운 형태가 특징
  - 인도 내 대부분의 종교가 강조하는 박애주의 정신과 정부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업의 사회 공여 법제화가 혼합된 형태
  - 의무화법 도입 후 초기 시행 기업은 CSR 프로젝트 구성에 혼선이 있었고, CSR 활동의무가 3년 내 실행으로 규정되며 시행시기에 따른 활동규모에 변동이 있었으나, 활동 시행기업은 증가세를 기록

< 인도기업의 CSR 활동 현황 >

1. 연도별 인도 CSR 규모

회계연도	참가기업		총규모	
	기업수(개사)	증감	금액(억 달러)	증감
'14~'15	16,548	-	14.0	14.0
'15~'16	18,291	+1,743	20.2	+6.2억
'16~'17	19,546	+1,255	19.9	△0.3억
'17~'18	21,441	+1,895	18.5	△1.4억
'18~'19	24,902	+3,461	26.0	+7.5억

\* 자료원 : 인도 CSR 데이터 홈페이지(www.csr.gov.in)

2. '18~'19년 분야별 CSR 지출 순위

(단위 : 천만 루피)

교육·장애복지 등	위생·영양실조 등	농촌개발	환경·자원보호	기타 기금
7,499.3	4,958.5	2,308.8	1,516.6	710.6
양성평등·여권신장	국가 구호기금	체육진흥사업	예술 및 문화	기술 등 기타
517.9	300.1	295.1	189.9	119.7

\* 자료원 : 인도 CSR 데이터 홈페이지(www.csr.gov.in)

□ CSR 정부정책 및 주요내용

- (의무화법) '14년 정부는 57년만에 회사법을 개정하여 CSR 의무 조항을 신설했고, 관련 시행령 및 기타 규정에 대한 행정·입법 권한은 기업부에 부여(회사법(Company Act, 1956) 제 135조)

- (대상) 최근 3년간 회계연도 기준 하기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시 CSR 활동 의무가 부과되나, 유한 책임파트너십 형태의 법인 또는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경우는 의무 미부과
  - \* ①총매출 100억 루피(약 1,700억원) 이상, ②순자산 50억 루피(약 850억) 이상, ③순이익 5,000만 루피(약 8.5억원) 이상
- 대상기업은 CSR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위원회 구성내역, 회사의 CSR 정책·이행내역을 이사회 보고서에 기술 필요
  - \* 위원회는 ①CSR 사업활동 정책을 수립 및 이사회에 권고, ②이사회에 필요비용 자문, ③활동이행을 상시 감독 의무를 지님
  - \* 이사회는 CSR 정책을 승인하고, 해당 정책은 웹사이트에 공시 필수

회사 구분	위원회 구성요건
상장기업 (Listed)	사외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비상장기업 (Unlisted&Private)	사외이사 1인 이상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2인 기업 (Private)	2인의 이사로 구성
외국기업 (Foreign)	대표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이 위원회를 구성

- (지출) 대상기업은 각 회계연도별로 직전 3년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 CSR 활동에 사용해야 하며, 불이행시 이사회 보고서에 사유명시 필요
  - \* 평균 순이익은 세전 순이익 의미(회사법 제198조), 당해연도 CSR 활동 초과분은 이월 불가
  - \* 시행령 4조에 따라 타기업과 공동기금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가능
- (기준) 회사법 개정 부칙으로 12가지 인정사례 게재(아래 참조)

①기아, 빈곤 및 영양실조 퇴치와 예방적 건강 관리 및 공중위생 증진, 안전한 식수제공	⑥참전용사 및 그 가족 대상 복지지원
②특별교육 및 아동, 여성, 노인 및 장애인 대상 고용 교육 및 생계 개선	⑦지역 스포츠, 국가 스포츠, 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 경기 종목 훈련지원
③양성평등 촉진 및 여권 신장, 여성 및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를 위한 주택 및 호스텔 건설, 노인 주택, 탁아소 및 노인주거 건설 등	⑧국가 구제기금 또는 기타 사회경제 개발과 지정된 계급(카스트), 부족, 기타 하층민, 소수자, 여성의 복지구제를 위한 중앙정부기금 대상 기부
④환경 지속성 및 생태 균형 보장, 동식물 및 산림농업 보호, 천연자원 보호 및 토양, 공기, 수질 보호	⑨중앙정부에서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 내 설립된 기술사업 인큐베이터 대상 기부 또는 기금 조성
⑤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건물 및 유적지 및 예술품의 복원을 포함하여 국가유산, 미술 및 문화보호, 공공도서관 건립 등	⑩농촌 개발사업
	⑪빈민 지역 개발('14.8월 개정)
	⑫구호활동 등 재난관리('19.7월 개정)

- \* 단, 행정 간접관리비용을 CSR 비용으로 인정하여, 기업 내부인력이나 외부 CSR 전문가 및 기관을 통한 역량강화 활동도 인정하고 지출한도를 총비용의 5%로 규정('14.9월 시행령)
- \* 상기 활동과 관련된 NGO가 CSR 활동만을 위해 설립되었거나, 그 목적이 CSR 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NGO에 대한 기부도 CSR 활동으로 인정

- (미인정) '14.6.18, CSR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기재(아래 참조)

①마라톤, 시상, 자선기부, 광고, TV 프로그램 후원 등 일회성 활동	⑤인도 영외에서의 활동
②노동법·토지수용법 등 기타 법률·규정이행으로 발생한 비용	⑥직원·가족 대상 복지사업
③직·간접적 정당 후원	⑦현물 출자(현물은 가치 판단이 어려워 자사제품 기부 불인정)
④통상 시행하는 사업 관련 활동	⑧직원 봉사활동

- (활동증빙) 공시의무에 따라 회계정보 공시 시 재무제표에 부속서로 CSR보고서 포함 및 회사 웹사이트에 공시 필수

< 시행령에서 특정한 CSR 보고서 양식 >

1. 추진 계획중인 프로젝트/프로그램 내용을 포함한 기업 CSR 정책 소개, CSR 정책 및 관련 프로젝트/프로그램 웹 링크 2. CSR 위원회 구성 3. 최근 3개년(회계연도) 평균 순이익 4. CSR 지출비용(상기 3번 항목에 따른 순이익의 2% 의무) 5. 회계연도 동안 CSR 지출내역 ① 회계연도 동안 사용한 총 지출, ② 지출하지 않은 비용 ③ 회계연도 동안 지출된 비용에 대한 보고내용(양식)은 아래와 같음							
(1)	(2)	(3)	(4)	(5)	(6)	(7)	(8)
연번	프로젝트/프로그램	프로젝트 분야	프로젝트/프로그램의 (1)지역 또는 기타 (2)주 또는 관할지역 명시	프로젝트/ 프로그램 별 예산	프로젝트/ 프로그램 지출비용 (직·간접비)	보고기간 중 누적지출	지출총액 : 직접 또는 간접비
6. 최근 3개년(회계연도) 순이익의 2%를 CSR 활동에 미지출한 경우, 그 사유를 보고서에 명시 필요 7. CSR 위원회는 기업의 CSR 목적·정책에 정책이행 및 모니터링 책임이 있다는 점 명시							

- (제재) CSR 미이행 시 관련 임원에 대한 처벌 법제화

- \* 보고서에 불이행 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지 않을 경우 ①對기업 5~250만 루피(90~4,500만원)의 벌금형, ②임원의 3년 이하 징역형이나 5~50만 루피(90~900만원)의 벌금형 가능
- \* 단, 현재는 기업부 장관이 형사처벌의 유예를 명시한 상태이며, 향후 공식적인 시행령이 나오기 전까지 상시 모니터링 필요

○ (처벌조항) '19년 7월, CSR 의무 미이행시 처벌조항 삽입

- CSR 불이행 기업수가 회계연도 '14~'15년 6,130개사에서 '17~'18년 9,753개사로 크게 증가하여, 기업의 CSR 참여 제고를 위해 신설
- 구체적 처벌규정을 명시했고, CSR프로젝트가 정부 특정펀드를 통해 시행 가능하도록 하고, 법정할당액 미지출 사항에 대한 법적책임 명확화

- ① CSR 법정할당액 관리 규제강화 : 미소진 금액은 사내보유가 불가하고, 3년 내 계획에 따라 미집행한 금액은 인도 정부구제기금에 자동예치
- ② CSR 프로젝트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대한 관리규제 강화
  - \* (사례1) 무계획 및 미시행된 경우 → 회계연도 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특정펀드로 징수
  - \* (사례2) 계획했으나 미시행된 경우 → 지정은행 계좌에 법정할당액 이체, 입금일 기준 3년 이내 프로젝트 수행 불이행 시 정부 펀드 강제징수
- ③ CSR 법적책임 및 처벌강화 : 기업 벌금 부과(5만~250만 루피), 임원 최대 3년 금고형 혹은 벌금 부과(5만~50만 루피)

< 코로나19 이후 CSR 활동 변화 >

- (기금조성) '20년 3월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재난구호 등을 위해 공공 자선 기금 PM CARES\*를 조성하고, 국내외 개인과 기관의 기부금을 받기로 결정
  - \* Prime Minister's Citizen Assistance and Relief in Emergency Situations Fund(모디펀드)
- 기업부는 PM CARES에 대한 기업의 기부를 CSR 활동으로 인정하고, 기타 사항도 CSR 활동으로 인정한다고 발표(아래 참조)
  - ① 기업이 보건·위생·재난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활동으로 사용한 기금
  - ② 기업의 재난관리청에 대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부
  - ③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근무한 임시·일용직에게 보수 외 호의(ex-gratia)로 지급한 금액\*
    - \* 이사회 의 명시적 선언과 회계감사인 인증 필요
  - ④ '주 정부 운영 구호기금'은 CSR 지출로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
    - \* 기업부 홈페이지(www.mca.gov.in) "COVID-19 FAQs" 또는 General Circular No.15/2020 참고
- (지출분야) 코로나19 발발 이후 기업CSR 예산의 80%는 코로나19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CRISIL의 보고서(CSR Yearbook 2020))
  - \* CRISIL FOUNDATION : 공공자선 신탁기관으로, CRISIL(S&P의 자회사)의 CSR 부문
-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 및 CSR 지출 상위 100대 기업\*의 '19~'20년 총 CSR 지출 중 80%가 코로나19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
  - \* 매출 상위 100대, CSR 지출 상위 100대 중 70개사가 중복되어 총 130개社
- 최근 CSR은 모디펀드와 코로나19를 위한 구호펀드에 집중되어 있고, 전통적인 CSR 활동(교육, 장애인복지, 방역 등)은 30~60% 수준으로 감소

III

유형별 기업 CSR 사례

< 유형별 사례 총괄표 >

유형	활동국	업체명	내용
코로나19 방역지원	미국	FedEx Express	구호물품 전달 위한 물류자원 기부
		Nike	의료진을 위한 스포츠웨어 기부
		삼성전자	구호금 및 교육지원 위한 제품 기부
		Honest Company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필수품 기부
	중국	삼성전자	기부금·방역물자 통한 현지기업·피해 협력사 지원
		알리바바	방역 관련 물자 기부 및 중소기업 경영지원
		텐센트	코로나19 퇴치 서비스 패키지 지원
		Canon	병원 첨단의료장비 기부
	프랑스	LVMH 그룹	방역용품 및 수익금 기부
		L'Oreal 그룹	방역용품 기부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이탈리아	삼성전자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 지원
	체코	현대자동차	코로나19 대응 위한 현금·현물 기부
	베트남	Vingroup	코로나19 대응 위한 방역용품 기부
Vinamilk		구호자금 및 방역물품·식품 기부	
K-Market		자선기금·구호물품 기부 및 상생 프로젝트 추진	
자선기금· 물품 기부	미국	Honest Company	친환경 제품 생산 및 지역사회 발전 지원
	헝가리	한국타이어	비영리단체에 타이어 기부
	독일	현대자동차	사회적 약자를 위한 CSR '6대 Move' 활동 추진
	베트남	Honda	교통안전 헬멧 기부 및 교육
	인도	세라젬	자연재해 피해지역 지원 및 교육프로젝트 추진
지역사회 역량강화	중국	종이나라	K-종이접기 온라인 교육학교 개최
	독일	Microsoft	디지털·IT 교육지원 및 직업훈련
		BASF	어린이 실험교실 등 지역자원봉사 활동 빈곤층 대상 비즈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운영
	일본	아이스크림미디어	디지털교육 환경강화 및 체험수업 제공
	베트남	현대자동차	교육소외계층 위한 학습멘토링 및 장학금 제공
		Intel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 및 장학금 제공
인도	삼성전자	전자교실 구축, 기술학교 운영 및 취창업교육	
지역경제 활성화	이탈리아	피아조	친환경 지향 및 노동환경 개선
	일본	아이리스오아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 추구
	인도	TATA Steel	낙후지역 경제활성화 및 사회 네트워킹 제공
기타	헝가리	코카콜라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호
	인도		낙후지역 물 창고 프로젝트 및 교육 추진


# 1

## 코로나19 방역지원

### □ 미국

#### ① FedEx Express : 구호물품 전달을 위한 물류자원 기부

- 보유한 글로벌 교통망과 물류자원을 활용, 對中 긴급 의료·구호물자 전달
- 구호단체 Direct Relief와 함께 N95마스크 56만장, 수술용 마스크 23만장, 의료용품 46만개 등을 병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

對中 구호물품 전달	미국 내 구호물품 배송						
 <p><b>Delivering For Good: A Journey to China</b></p> <p>When disaster strikes, it's important to move fast. In times of need, we quickly mobilize our global network and expertise to deliver the supplies and commodities our donors request, wherever they are needed most.</p> <p><b>A Journey For Hope</b></p> <p>Up to February 26, FedEx sent 8 crates of medical supplies to China through collaboration with Direct Relief.</p> <p><b>What have we shipped so far?</b></p> <table border="1"> <tr> <td><b>Shipments</b> 8</td> <td><b>Masks*</b> 790,010</td> <td><b>Coveralls</b> 15,662</td> </tr> <tr> <td><b>Other Medical Supplies</b> 4,675</td> <td><b>Gloves</b> 442,500</td> <td><b>Weighting a total of 12,967 kilograms</b></td> </tr> </table> <p>And that's not the end of the journey for hope. We'll continue to help wherever we can.</p>	<b>Shipments</b> 8	<b>Masks*</b> 790,010	<b>Coveralls</b> 15,662	<b>Other Medical Supplies</b> 4,675	<b>Gloves</b> 442,500	<b>Weighting a total of 12,967 kilograms</b>	
<b>Shipments</b> 8	<b>Masks*</b> 790,010	<b>Coveralls</b> 15,662					
<b>Other Medical Supplies</b> 4,675	<b>Gloves</b> 442,500	<b>Weighting a total of 12,967 kilograms</b>					

\* 자료원 : [newsroom.fedex.com](http://newsroom.fedex.com)

#### ② Nike : 의료진을 위한 스포츠웨어 기부

- 기부물품 배급 전문 비영리단체인 Good360과 협력하여 미국 전역의 코로나19 의료 종사자에게 특화된 신발 3만 켤레를 기부했고, 가방·모자·양말 등 1,100개의 스포츠웨어 세트를 뉴욕 의료진에 기부

의료진 기증 신발	뉴욕 의료진에 물품 기증
	

\* 자료원 : [laprensaLatina.com](http://laprensaLatina.com), [foxbusiness.com](http://foxbusiness.com)



③ 삼성전자 : 구호금 및 교육지원 위한 제품 기부

- 코로나19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해 삼성 제품·기술을 제공했고, 학교의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품·기술 제공
- 비영리단체를 통해 430만 달러 이상의 구호금을 기부했고, 특히 아동 교육문제 해결 목적으로 현지 교육 파트너사를 통해 자금 기부



\* 자료원 : news.samsung.com

④ Honest Company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생활필수품 기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National Diaper Bank, Baby2Baby 등 자선 단체와 협력하여 생활필수품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기저귀, 물티슈, 스킨케어 등 제품 350만개 이상 전달
- 이 외 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자선단체와 매칭을 통해 1인당 500 달러 내외의 기부금을 납부하는 활동도 추진



\* 자료원 : honest.com, people.com

□ 중국

① 삼성전자 : 기부금·방역물자 통한 현지기업·피해 협력사 지원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적십자회를 통해 우한시에 마스크 100만 개, 방호복 1만 벌 등 3천만 위안 규모의 물자 지원
- 코로나19 피해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5.2조원 규모 자금지원
- \* 자금지원 2.6조원, 무이자·저금리 대출지원 1조원, 물품대금지급 1.6조원 등



\* 자료원 : 삼성(중국) 공식 웨이보

② 알리바바 : 방역 관련 물자 기부 및 중소기업 경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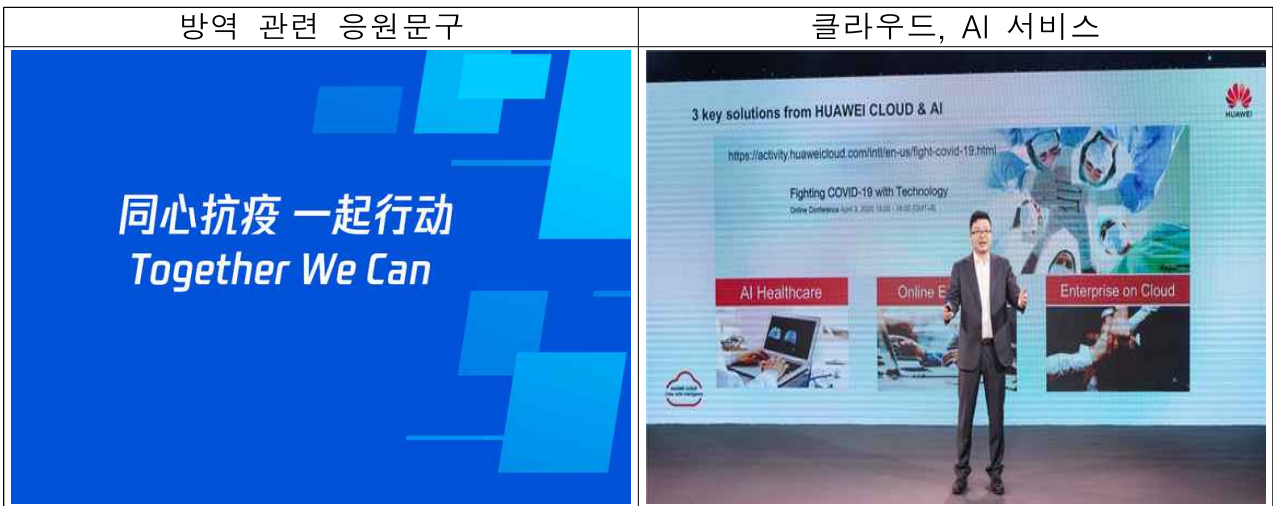
- 34억 위안을 투자하여 의료물자 조달, 의료진 지원, 백신개발 지원, 글로벌 물류 녹색통로(패스트트랙) 개방 등 추진(3월말 기준)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사업 개선, 디지털 산업벨트 구축, 스마트 네트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 지원 및 對소상공인 대출 지원
- 마윈 공익기금회·알리바바 공익기금회·중국저장대학 부속 제일병원 공동으로 '코로나19의 예방과 대처 및 치료법'을 발표하고, 코로나19의 예방, 통제 및 중증이상 환자 치료 지원



\* 자료원 : kandao.com, kuaibao.qq.com

③ 텐센트 : 코로나19 퇴치 서비스 패키지 지원

-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에 처한 기업과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적 서비스 패키지' 발표
- 코로나19 관련 정보 제공, 원격 근무 지원, 온라인 의료 자문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약물개발 시간 및 원가 절약을 위한 신약 개발 플랫폼 iDrug를 발표



\* 자료원 : tencent.com, pmasia.com

④ Canon : 우한병원에 첨단의료장비 기부

- 코로나19 발발 후 우한병원에 CT장비 28대를 기부했고, 중국 각 병원에 녹색통로를 열어 원활한 부품 공급과 의료기계 설치 및 유지보수 수요에 빠르게 대응



\* 자료원 : pcpop.com

< 코로나19 관련 중국 내 CSR 활동 사례 >

기업명	유형	내용
CHINA INSURANCE (中華人壽)	보험, 기부	·방역 일선에 보험금 제공(누적 7.56억 위안) ·7*24시간 녹색통로(패스트트랙) 서비스 오픈 ·빈곤지역 학교에 2만 위안 기부, 물자 1.5만 위안 상당 지원
BESTORE (良品鋪子)	기부, 취업	·병원(78곳), 격리지점, 광창병원 등 일선 방역기관에 613만 위안 상당 식품물자 지원 ·일자리 6,500개 제공
치정장야오 (奇正藏藥)	기부	·방역 의료진에 약품 제공 ·중난산 의료팀에 참여
쉐얼쓰 에듀 (學而思)	교육	·CCTV와 함께 2월부터 초중고 과정 강의 무료 제공
애플	기부	·중국빈곤기금회와 'Apple 코로나 기부금 지원 기구' 설립 ·5천만 위안 상당의 기부금, 물자 등 우한 병원에 지원
WG	기부	·7천만 위안 상당 기부금, 물자 등 지원
a2	기부	·500만 위안 기부금, 500만 위안 상당 유제품 지원
암웨이	기부	·살균 손세정제 6만 개, 청결제 5.4만 병, 공기청정기 550대 등 1,000만 위안 상당 방역물자 지원
현대자동차	기부	·마스크, 방호복, 고글, 현금 등 1,500만 위안 상당 물자 지원
SK	기부	·700만 위안 기부금, 300만 위안 상당 방역물자 지원
한미약품	기부	·900만 위안 상당 약품 및 방역물자 지원
LG	기부	·824만 위안 상당 기부금 및 물자 지원

□ EU

① (프랑스) LVMH 그룹 : 방역용품 및 수익금 기부

- 화장품 생산라인을 활용해 대량의 손세정제 생산 및 병동에 기부 (Christian Dior, Geulain, Givenchy 등)
- 방역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마스크 등 수백만 장을 의료진 및 호텔·마트 직원에게 기부(Louis Vuitton, Dior, Baby Dior)
- 방역조치 위한 알코올 및 방역용품 병원에 기부(Moët&Chandon, La Maison Hennessy, Veuve Clicquot 등)



\* 자료원 : LVMH 홈페이지

② (프랑스) L'Oreal 그룹 : 방역용품 기부 및 사회적 약자 배려

- 그룹 직원 3천명의 고정급여를 100% 지급하고, 이러닝 프로그램 'Safe Together'를 개발하여 방역수칙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교육 실시
- 병원, 요양원, 약국, 식품유통기업에 손세정제 수백만 개를 기부했고, 고객사 미수금 동결 및 제조업 협력관계사 9천개사에 현금지급기간 단축



\* 자료원 : L'Oreal 홈페이지

③ (이탈리아) 삼성전자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디지털 교육기반 조성 지원

-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일부지역(로디, 바레제 등) 학교에 디지털기기(태블릿 등) 및 e-러닝 학습시스템 지원
- 'Samsung Smart Learning', 'Smart Future' 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교사들에게 원격교육 프로그램 및 디지털 교육설비 지원 추진



\* 자료원 : 삼성전자 홈페이지

#### ④ (체코) 현대자동차 : 코로나19 대응 위한 현금·현물 기부

- 코로나19 발발 후, 체코 정부에 1천만 코루나(한화 5.3억원)를 기부
- 지역사회에는 FFP2 등급 마스크 20만개(한화 1.7억원) 기부 및 전역의 병원과 보건소에 차량 무료대여 추진



\* 자료원 : 현대자동차 체코생산법인

#### □ 베트남

##### ① Vingroup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용품 기부

- 코로나19 방역 및 자국민 보호를 위해 산소호흡기 100대, 코로나 검사기 800대, 한국산 진단키트 20만 개를 구매하여 보건부에 전달했고, 해외체류 자국민을 위한 특별 귀국 항공편 지원
- 코로나19 치료 외 응급상황이나 중환자실에서도 사용가능한 인공 호흡기 1,700개를 보건부에 기부했고, 다낭·하이퐁·박닌 3개 지역에 코로나19 PCR 진단키트 5.6만 개 전달



\* 자료원 : Marketing AI, Vingroup 홈페이지

## ② Vinamilk : 구호자금 및 방역용품·식품 기부

- 방역지원을 위해 100억 동(약 5억원) 상당의 유아용품 및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베트남 조국전선 중앙위원회에 기탁
- 하노이시에는 진단키트 5만개(50억 동)를 기부했고, 다낭·꽝남·꽝응아이 등 지역의 의료진·환자에게 10억 동 상당의 영양식제품 제공



\* 자료원 : Marketing AI, The Saigon Times

## ③ K-MARKET : 자선기금·구호물품 기부 및 상생 프로젝트 추진

- 당사 회장은 주베트남 대사, 박항서 감독 등과 함께 베트남 조국 전선 중앙위원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현금 10만 달러 및 16억 동(약 7900만 원) 상당의 각종 구호물품 기부
- 코로나19로 對中 수출이 어려워지자 수박 22톤을 구입해 원가로 판매하는 'K-MARKET&베트남 농가 상생 프로젝트' 추진



\* 자료원 : 굿모닝 베트남, K마켓 페이스북

## □ 인도

기업명	내용
Infosys Foundation	- 모디펀드(PM CARES)에 5억 루피를 제공하고, 50억 루피 상당의 진단키트, 마스크, 인공호흡기, 식량 등 빈곤층에 제공 - Narayana 병원 격리시설에 100개의 침상 제공
ITC Ltd	- 코로나19 대응 위한 펀드에 15억 루피 제공으로 재정지원 및 빈곤층에 건강검진 제공 추진
인디아 스테이트은행	- 모디펀드에 10억 루피를 제공하고, 회계연도 '19~'20년 순이익의 0.25%를 코로나19 대응 위해 기부 선언
힌두스탄 유니레버	- 10억 루피 제공과 함께 손소독제 가격 인하 발표 - 손소독제, 화장실 청소제, 비누, 손비누, 건강키트 등 용품을 병원·빈곤층에 기부 약속
TCS	- 코로나19 환자 추적시스템, 건강키트, 인공호흡기 등 제공
Reliance Industries Ltd	- 코로나19 병원에 병상 100개, 500만 명분 무료 식사, 마스크 10만개, 응급차량 무료 연료 지원, 개인보호장비 1천개를 보건의로 종사자들에게 지원 - 총리펀드에 50억 루피 제공

## 2 | 자선기금 · 물품 기부

### □ (미국) Honest Company : 친환경 제품 생산 및 지역사회 발전 공헌

- 스킨케어, 기저귀 등 친환경 유아·가정용품 제조기업으로, LA시와 함께 웰컴홈 프로젝트, 유아보육센터 환경조성 캠페인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및 기부 추진

\* '12년 비즈니스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 및 소비자·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게 부여되는 사회적기업 인증 'B Corp' 획득



\* 자료원 : honest.com



□ (헝가리) 한국타이어 : 비영리단체에 타이어 기부

- 한국타이어의 가치창조 프로그램(Value Creation Program)의 일환으로 '12년부터 매년 비영리 단체에 타이어 기부, '19년까지 1.8만 개 지원
- \* National Ambulance Service, National Directorate General for Disaster Management 등
- 코로나19 발발 후 전염병에 대응하는 공공단체, 특히 취약계층 대상 식품 전달 및 기부활동을 수행하는 Hungarian Red Cross에 타이어 200개 기부



\* 자료원 : Autoblog.hu

□ (독일) 현대자동차 : 사회적 약자를 위한 CSR '6대 Move' 활동\* 추진

- \* ① 사회적 약자 자립지원 '드림무브', ② 계열사와 함께하는 '넥스트 무브', ③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 '이지무브', ④ 교통안전 관련 '세이프 무브', ⑤ 환경보호 관련 '그린무브', ⑥ 고객 참여 자원봉사 '해피무브'
- '04년부터 기독교 자선단체 카리타스(Caritas)와 파트너십을 통해 70개 프로젝트로 소외계층 어린이 등 15만명 이상을 지원하고, 매년 기부금 4만 유로 및 차량 기부 추진
- '10년 레고랜드에 25대의 차량기부 및 테마공원 내 어린이 자동차 학교를 운영하며 친가족문화 프로젝트 운영



\* 자료원 : 현대 홈페이지

□ (베트남) Honda : 교통안전 헬멧 기부 및 교육

- '08년부터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을 위한 안전한 교통'이라는 슬로건으로 안전운전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400만 명 이상 수료)
- '18~'19학년도에 전국 초1 학생들에게 표준헬멧 200만개를 기부했고, '19~'20 학년도에 어린이 헬멧 191만 개 기부하여 6~15세 어린이 헬멧 착용비율은 35%에서 52%까지 제고
- \* 'Keep Full Dreams Together' 라는 표어로 교통안전위원회·교육부와 함께 추진



\* 자료원 : VnResource, 베트남 교육훈련부

□ (인도) 세라젬 : 자연재해 피해지역 지원 및 교육프로젝트 추진

- '18년 케랄라 홍수 피해지역 지원과 '20년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생필품, 식량, 마스크, 간이화장실 등 지원 추진
- '어린이의 미래가 인도의 미래다'라는 기치 아래 드림스쿨 프로젝트를 실시, 6개 지역에 드림스쿨을 설립하며 학업환경 개선 추진
- \* 5년간 1.5억원 투입으로 6개 지역 화장실 개보수, 안전장치 시설, 정수시설 설치 등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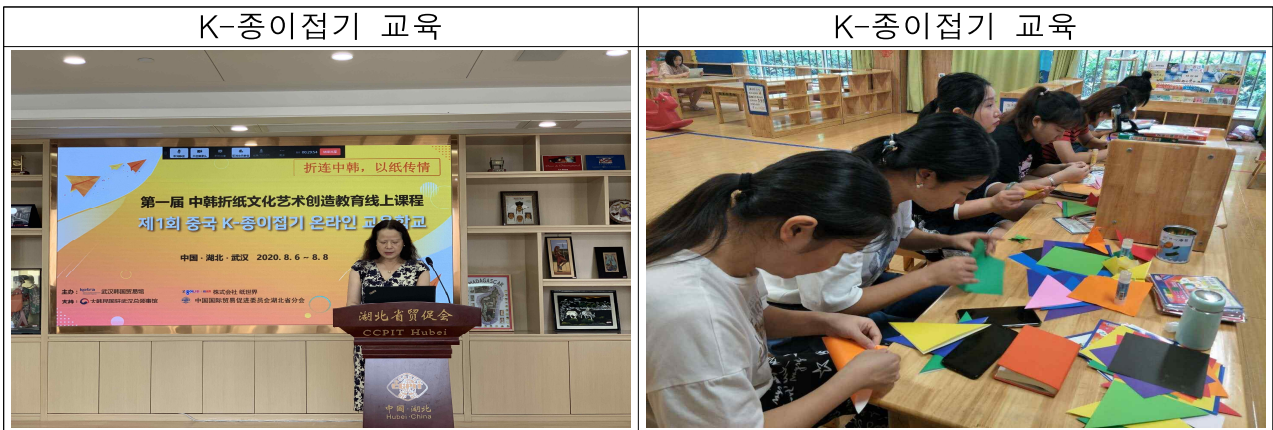
\* 자료원 : 페이스북 페이지, 세라젬 홈페이지

### 3 | 지역사회 역량강화

#### □ (중국) 종이나라-KOTRA : K-종이접기 온라인 교육학교 개최

- (주)종이나라와 KOTRA 우한무역관, 중국 CCPIT가 공동으로 온라인 교육학교를 개최, 문화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피로한 어린이들의 심신안정 및 창의력 제고 지원

\* 참석자 : 우한(武漢), 셴닝(咸寧), 언스(恩施), 광수이(廣水) 등 20여 개 어린이집 교사 130명



\* 자료원 : KOTRA 우한무역관

#### □ (독일) Microsoft : 디지털·IT 교육지원 및 직업훈련

- 유럽의 난민유입에 따라 '16년 베를린에 레디학교(ReDI School)를 설립하고, 난민과 이주민에 IT 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실시
- '08년부터 직원들의 IT 관련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NGO Helpline'을 통해 자사제품을 사용하는 비영리 조직을 지원
- 자사제품 및 기술개발을 통해 인간가치가 파괴되는 상황 방지를 위해 AI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제품개발 추구



\* 자료원 : redherring.com, ReDI School 홈페이지

□ (독일) BASF : '20년 독일 정부로부터 'CSR 우수기업상' 수상

- '94년 이후 지속 가능성을 21세기 사업 모델로 선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컨셉과 결합한 10대 분야\* 운영

\* 환경보호 경영, 직원과 지역사회 지원, 밸류체인, 협력사 지원, 장기 매니지먼트 계획, 지속가능개발, 사회가치접근방식, 재생 및 순환경제, 지속가능 솔루션, 탄소관리

- 40개국의 어린이 실험교실(Kid's Lab)과 직원의 지역 자원봉사 활동 (Connected to Care)을 지원했고, 스타트업 벤처 프로그램으로 전세계 빈곤층 대상 비즈니스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운영

\* 어린이 실험교실 참가자는 110만 명, 자원봉사는 현재 150개 프로그램 운영 중

\* 아시아·남미·아프리카에 각 4개 프로젝트 운영. 예)페루 농업 보호 Allin Kawsay 프로젝트 등



\* 자료원 : BASF 홈페이지

□ (일본) 아이스크림미디어(주) : 디지털교육 환경강화 및 체험수업 제공

- 일본 초등학교 내 프로그래밍 교육 의무화에 따라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체험수업·교재 무상제공하여 교육격차 해소 노력

- 디지털교육 기반이 미비한 지역에 S/W 무상제공, ICT 교사 교육 및 역량강화 등 자사 콘텐츠를 활용해 디지털교육 환경 강화 지원

- 또한 CSR 활동을 고객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여 현지시장 니즈와 눈높이에 맞춘 제품 개발 추진



\* 자료원 : KOTRA 도쿄무역관

□ (베트남) 현대자동차 : 교육소외계층 위한 학습멘토링 및 장학금 제공

- (사)점프, 베트남평화봉사단(VPV), 하노이베트남국립대학교(VNU)와 함께 '22년까지 '현대차 대학생 교육봉사단 H-점프스쿨 베트남' 운영 추진
- 현대차는 3년간 150명의 현지대학생을 통해 현지교육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멘토링을 제공하고, 봉사단에게는 장학금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자료원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TC Motor 홈페이지

□ (베트남) INTEL :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 운영·장학금 제공

- '05년 현지에 대규모 반도체공장을 건설하며 전문 엔지니어 육성을 위해 포틀랜드주립대와 제휴, 총 73명에게 장학금을 제공
- USAID와 협력으로 애리조나주립대에 자금지원을 통해 '10년 전문 인력 육성 프로그램 'HEEAP\*'를 설립 및 운영, 엔지니어링 인력 육성을 통한 제조업 강국 전환 및 현지 첨단산업 성장을 촉진

< HEEAP 지원 단계별 주요 내용 >

※ HEEAP : Higher Engineering Education Alliance Program

- HEEAP 1.0('10년~'13년) : 엔지니어링 관련 전공 교수진에게 사례 교육을 통한 교육법 개선에 초점, 여성을 위한 기술 장학금 프로그램, 엔지니어링 교육 컨퍼런스, 세계 은행 네트워크 활용 등 지원
- HEEAP 2.0('13년~'16년) : 직업 및 대학 리더십 혁신 연구소(VULII)를 설립하고, 국제 인증 표준에 부합하는 기관 및 커리큘럼 개선으로 대학 학장·총장의 역량 제고에 초점
- HEEAP 3.0('15년~'20년) : 5년간의 신뢰 구축 기간으로 기관 정책, 품질 보증, 커리큘럼, 교수진 혁신 및 인증 관련사항 조치

□ (인도) 삼성전자 : 전자교실 구축, 기술학교 운영 및 취창업교육

- '13년 4월부터 28개주 583개 학교에 전자교실 683개를 구축, 중고등학생 44만명이 디지털 수업에 참여 및 8천명의 교사들이 디지털 교습법 수료
- '13년 9월부터 20개주 취준생 대상 35개 기술학교를 운영, 8천명에게 모바일·가전 수리기술을 교육했고, 5천명이 취업 및 개인 창업에 성공하여 일자리 창출기업 이미지 구축



\* 자료원 : news.samsung.com

## 4 지역경제 활성화

□ (이탈리아) 피아조(Piaggio) : 친환경 지향 및 노동환경 개선

- 환경 분야에 대한 투자로 모든 시설에 ISO 14001(환경) 인증을 취득했고, 대학 연구소와의 함께 대체에너지·환경·신기술 등 분야 연구 추진
-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BS OHSAS 18001(근로자 안전 및 환경), ISO 45001(사업장 안전 및 운영) 인증을 취득해 사업장 투명운영 및 관리 추진
- 지역사회 중심으로 다수의 전시, 콘서트 등 공연을 통한 문화 체험 제공



\* 자료원 : Economic Times 보도사진, vespa.com

□ (일본) 아이리스오야마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 추구

- 사회적 이해관계자와의 상호 동반성장을 추구, 환경보호와 에너지 효율, 재해지역 지원발전, 지역인재 육성 등 분야에서 활동 추진
- '11년 동일본대지진 피해지역의 재해복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구호물자 지원, 지방인재 육성, 농업부흥 등 상시 시행
-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생산을 위한 적극적인 설비투자로 공급 안정에 기여한 노력으로 브랜드 가치상승\* 및 매출 확대로 연결

\* '19년 62위 → '20년 17위(닛케이 조사)



\* 자료원 : 아이리스오야마 홈페이지

□ (인도) TATA Steel : 낙후지역 경제활성화 및 사회 네트워킹 제공

- 타타스틸농촌발전회(TSRDS)를 구성하여 600개 이상의 농촌마을에 과학농법 및 금융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했고, 산모·신생아 생존 프로젝트로 1,686개 농촌마을 22만 가구에 방문건강서비스 시행
- 다양한 부족의 언어·전통 스포츠·교육 등 문화적 정체성 보존을 위해 삼바드 플랫폼\* 구축 및 부족 간 교류사회를 형성했고, 정치·기업·언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부족민간 네트워킹 서비스 제공

\* 힌두어로 '대화'라는 의미로, 29개 주 153개 부족 지역사회 8,500명이 참여



\* 자료원 : [indiacr.in](http://indiacr.in), [tatasteel.com](http://tatasteel.com)

5

기타

□ 코카콜라 : 자원 재활용 및 환경보호, 낙후지역 지원

① (헝가리)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World Without Waste 프로젝트' 일환으로 'Zero Waste Tisza' 환경보호 활동 전개

\* '30년까지 판매하는 모든 음료 패키지 100% 수거 및 재활용 목표

- 25만 달러의 재정적 후원과 함께 '19년 7월부터 14개월만에 Tisza 강변의 쓰레기·유목 1만톤 수거 및 음료 패키지 80톤 재활용 실시
- Tisza강에 GPS 부착 PET를 투입하여 현장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자원봉사자 수시 모집 및 쓰레기 수거 활동 전개

'Zero Waste Tisza' 포스터	'Zero Waste Tisza' 활동
	

\* 자료원 : petkupa 홈페이지

② (인도) '물 창고' 관리 및 현지교육훈련 프로젝트 추진

- 작은 마을 대상 '물 창고' 관리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가 빗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수자원 저장 공간을 구축하고 관리방법 전수
- 이외에도 페트병 리사이클링,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구성을 위한 공급망 구성, 기후환경보존, 현지교육훈련을 위한 프로젝트 수행

\* 연도별 CSR 지출액(억 루피) : ('16~'17) 136.8 → ('17~'18) 140.3 → ('18~'19) 162.3

현지마을 물 창고	현지교육훈련 프로젝트
	

\* 자료원 : coca-colaindia.com, cleanindiajournal.com



< (참고) CSR 실패사례 >

□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여 기업활동에 피해가 발생한 사례

유형	내용
환경보호 문제 야기로 인한 부정적 인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10월, 중국 내 A그룹은 강한 알칼리성 가스처리 장치를 세척한 폐수를 공장 내 빗물관망으로 직접 흘려보내면서 심각한 환경오염 초래</li> <li>· 과거 타도시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벌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고, 이번에도 벌금 혹은 담당자 구속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언론은 예측</li> <li>· 석유·가스 생산기업인 B그룹은 친환경 이미지 구축 및 CO<sub>2</sub> 배출 감축을 위해 풍력·태양광·배터리 등 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li> <li>· 그럼에도 기업 특성상 환경오염의 대표기업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졌고, 지방정부·NGO는 당사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20년 법정소송 제기</li> <li>· C사는 배기가스 관련 조작사건으로 미국·독일차주와의 소송에서 합의금 배상 판결을 받았고, 차량판매 승인을 위한 기술인증 취소로 판매 전략에도 악영향</li> <li>· 아울러 독일 정부는 자국기업이 CSR 가치 위배행위를 할 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0년 9월 '공급망법'을 발의하여 조항 삽입</li> <li>· '16년 D사는 유독성 산업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 투기하여 베트남 중부 해안 지역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li> <li>· 환경 피해와 어업·관광업 종사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으며 항의가 이어졌고, 당사는 책임소재 인정 및 공식사과하며 5억 달러의 보상금 배상</li> </ul>
경영리스크 관리실패에 따른 기업이미지 실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제노바의 교량이 붕괴되면서 교통 인프라의 건설관리 대표기업인 E사의 관리부실 책임이 대두, 사법당국은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 착수</li> <li>· 조사단은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정부가 고속도로 운영권 회수 및 관리사업 국영화 추진하면서 E사 주가는 26% 폭락</li> <li>· 일본 광고대행사 F사는 인권존중·노동환경정비를 통한 노동문제 해결을 추진했으나, 직원 과로사 및 자살 발생으로 사회이슈 부각</li> <li>·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사장은 사임했고, F사는 후생 노동성·민간 블랙리스트에 게시되는 등 제재조치를 부과받음</li> <li>·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주요 사례로 회자되며 일본의 업무문화 개혁·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확대에 영향을 미쳤고, 정부는 '18년 업무 방식 개혁을 추진하여 유사사례 방지 및 노동환경 개선 중</li> </ul>
거짓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년 베트남 라면기업 H사는 CSR 사업으로 소아암 환자를 위한 모금을 진행, 판매된 라면 1개당 10동(약 0.5원)을 기부할 것으로 광고</li> <li>· 그러나 이는 판매량 제고를 위한 허위로 확인됐고, 기부금 금액도 매우 작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소비자 및 소비자보호협회는 보여주기식의 활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강하게 비판</li> </ul>

## IV

## 시사점

### □ 사업 및 해외진출 초기 단계부터 CSR 전략 마련 필요

- 국가별 정부·기업·민간의 CSR에 대한 인식 수준 차이는 있으나, CSR 활동에 대한 요구 및 기대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CSR 활동이 규범화되며 강화되는 추세

< 국가/지역별 CSR 관련 정책현황 및 핵심 포인트 >

국가/지역	정책현황 및 핵심 포인트
미국	기업은 자발적인 CSR 활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 민간은 소비행위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
EU	시민들의 CSR 활동에 대한 기대에 더해 CSR의 의무이행으로 정부정책 기조가 변화하며 제도화되고 국제규범에도 영향 예상
일본	사회과제 해결주체로서 기업에 대한 기대, 산업계 전반에 걸친 CSR 문화의 정착과 정부의 장려책에 따른 기업의 주도적 역할 수행
중국	정부주도로 CSR 장려정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제재조치 및 평가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CSR 활동을 강조
베트남	CSR 활동과 그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은 아직 낮지만, 정부의 인식개선 사업 및 관련법안 발의를 통해 사회적 책임 강조
인도	CSR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및 처벌조항 마련을 통해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강조

-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 CSR을 활용한 전략 마련 및 활동 전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전환
  - CSR을 빈민층에 대한 기부나 복지 등을 위한 이벤트성 활동 프로그램이나, 기업경쟁력 강화와 연관이 없는 단기적 비용 증가로 간주하는 인식으로 CSR을 소홀히 하는 경우 존재
  - 그러나 전세계 소비자는 점차 사회 및 환경공헌을 하는 기업의 상품·서비스를 선호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으며, 기업의 CSR 활동은 소비자 유치 및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 EU와 개도국을 중심으로 법적 구속력을 지닌 CSR정책과 제재조치가 도입되면서, 우리기업의 현지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
  - 따라서 현지진출 시부터 CSR에 대한 고민 및 전략수립이 필요

## □ CSR 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 (핵심가치 연계) CSR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핵심가치와 연계하고, 내재화한 CSR전략을 수립하여 활동의 연속성·예측성 확보
  - 가치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CSR 활동 추진 필요
  - CSR 활동을 비용추가가 아닌, 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투자와 전략으로 인식하고 지속 추진으로 사회적 기업 브랜드화 필요
- (현지맞춤형) 현지 상황과 법규제도, 다양한 CSR 사례를 검토하여 시장과 산업 생태계에 어울리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시행 추진
  - 국가별 제도나 정책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정부·사회·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해관계자-기업간 꾸준한 스킨십이 가능한 모델 개발
  - 무분별하거나 목표가 불분명한 활동이 아닌, 현지상황과 이슈에 특화되고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CSR 활동 효과 극대화 필요
- (소통강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및 상호이해 증진 필요
  - 일회성 활동 추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해관계자와 가치관 공유 및 상호이해 증진을 통해 신뢰 및 사회적 기업 이미지 구축 필요
  - 글로벌 네트워크나 협의체·연구조직\*, 현지 시민단체나 NGO와의 소통강화 및 사례공유를 통해 전략을 수립할시 시행착오 감소 가능

\* 예) EU 'CSR Europe', 日 '사회적 책임에 관한 원탁회의', 印 '인도 기업협회(CII)' 등
- (사후관리체계) CSR 활동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성과관리, 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전파
  - 단순한 정보의 나열과 공개가 아닌,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활동성과를 측정하고 대외 홍보 추진 필요
  - 특히 북미, 유럽 지역의 금융 및 투자기관은 경영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기업의 비재무 정보를 주목하고 있고, 투자전략에도 활용하고 있어 투명한 정보공개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 주목 필요

## 작 성 자

▪로스앤젤레스무역관	강택우
▪시카고무역관	정지원
▪베이징무역관	윤보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강환국
▪파리무역관	곽미성
▪브뤼셀무역관	권지연
▪밀라노무역관	유지윤
▪부다페스트무역관	김익중
▪프라하무역관	이정빈
▪도쿄무역관	김승호
▪하노이무역관	이혜인
▪뉴델리무역관	채정훈
▪무역분석팀	이윤식

Global Market Report 20-034

## 주요국별 CSR 정책 및 현지 CSR 사례집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20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문 의 처 | 무역분석팀  
(02-3460-7589)  
I S B N | 979-11-6490-598-0 (93320)  
979-11-6490-599-7 (95320)

---

# Global Market Report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